

‘출산정책 으뜸 해남’…줄잇는 벤치마킹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책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지자체·기관 122개팀 다녀가

해남군이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공공산후조리원 등 차별화된 출산정책의 성과다.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출산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 방문이 지난해부터 줄을 이어 지금까지 122개 팀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외 60여 매체에 해남군 출산정책이 소개되면서 중앙정부 출산정책으로 적극 채택되는 등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중간간부 과정을 이수 중인 공무원 20명이 해남군을 찾아 해남공공산후조리원 등을 견학하고 출산시책을 벤치마킹했다.



지방행정연수원 중간간부 과정을 이수 중인 공무원 20명이 최근 해남군보건소를 찾아 출산시책을 벤치마킹했다.

참가자들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설립,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는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한데 이어 해남 출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를 찾아 차별화된 출산시책을 설명듣는 시간을 가졌다.

8월 들어서는 경북 칠곡군과 경남 밀양시 출산정책 담당자들이 해남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이들은 “출산을 저하가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해남의 앞서가는 출산

정책을 배워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도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18~24개월 분할 지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성공 운영, 임신부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 확대 지원, 땅끝 솔로탈출 여행, 분만산부인과 개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 해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는 한편 상반기 출산정책 포럼을 통해 발굴된 57개 신규시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미경 해남보건소장은 “일찍부터 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남군의 성공사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앞서가는 출산정책들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마치고 31일까지 하반기 수강생 모집

해남군 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하반기 강좌부터 새롭게 찾아간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평생학습관은 기존 여성회관의 명칭과 기능을 전환해 명실상부한 군민 평생학습 요람으로 다음달 10일 새롭게 문을 연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립 20년 된 노

후 시설물을 새로 단장하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을 신설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리스타 강좌 등을 위한 특성화 강의실도 새롭게 개설했다. 예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설 강좌 외에도 인문

학 강좌 등 시기에 맞는 비상설 강좌도 활발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하반기 강좌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강좌는 기존의 교양 취미 강좌뿐 아니라 바리스타, 아로마디자인 지도사, 책놀이 지도사 등 자격증분야를 추가

로 신설한다. 또한 특성화과정으로 노인 대상 손주돌봄교실과 다문화가정 대상 바리스타3급 자격증반을 무료로 개설한다.

교육은 다음달 10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과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나 해남군평생학습관(061-530-5319, 5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보배섬 진도의 매력 우리가 알린다”

‘제1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20대~60대 33명 선발



진도군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 제공>

보배섬 진도의 매력을 알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진도군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7기 SNS 서포터즈들은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익숙하고, 홍보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33명을 선발했다.

진도군에 애정이 있고 글쓰기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주부, 직장인, 농업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번에 진도군 SNS 서포터즈로 위촉된 정영주(서울 강서구)씨는 “불거리와 예술의 향기, 특별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보배섬 진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령·직업군이 다양해 분야별로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진도군의 매

력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홍보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축제, 행사, 문화 등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소식 등 진도군의 숨은 매력을 알린다. 또 진도 곳곳을 누비며 관광명소, 축제, 맛집, 미담 등을 자유롭게 취재해 진도군이 운영 중인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전달한다.

군은 홍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팅 원고료 지원, 팸투어, 우수단원 표창,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최근들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대중화로 의사소통과 정보 이용방법이 SNS 활용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계기로 진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등 SNS 사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단 직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해양쓰레기 120㎥ 분량 수거 처리

전담 수거단 한달간…60% 페스티로폼·30%는 폐어구

“해양쓰레기 60%는 페스티로폼이고, 30%는 폐어구였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운영을 시작한 완도군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단이 한 달간 해양쓰레기 120㎥를 수거했다. 120㎥는 톤백대(1m×1m×1m) 120개로 이를 쌓으면 아파트 40층 높이다.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 중 60%는 페스티로폼으로 이물질이 섞여 있어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30%는 폐어구, 10%는 일반쓰레기였다. 전체의 약 20%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판단하고 있다.

처리단은 마을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페스티로폼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쓰레기와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완도군은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전담 수거하고 처리하는 공무원 4명을 채용했다.

보길면 백도리를 시작으로 6개 읍면 11개 마을을 돌며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생일면, 노화읍 등 12개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응기를 도입·운영해 자원 재활용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지역채본부장



완도군은 지난 13일 (사)노르딕워킹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해변·숲길에 노르딕워킹 코스 조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완도군이 청정 해변과 숲길에서 노르딕워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한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노르딕워킹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완도 해변과 숲길에 노르딕워킹 전문 코스 발굴, 노르딕워킹 전문 인력·기술·교육 분야 업무지원, 국내·외 노르딕워킹 대회 유치 및 동호회 교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르딕워킹은 전용 스틱을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걷기 운동 운동이다.

완도의 청정한 해변에서 노르딕워킹을 하게 되면 해양에어로졸 흡입과 비타민D 형성을 위한 태양광에 자연스럽게 노출돼 운동은 물론 해양치유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와 연계한 노르딕워킹을 특화 자원으로 개발해 주민과 관광객 건강 증진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지역본부장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